

광주·전남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나서야

광주전남연구원 송태갑 위원 주장 도시숲·정원 등 자연자원 늘려 삶의 질 높이는 방안 고민해야

숲이나 정원, 습지 등 자연자원을 기반 시설로 인식해 도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의 주요 도시가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경관·관광 분야 등에서 파급력이 높은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위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 제147호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에서 "최근 유럽공동체,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린 인프라' 정책의 도입을 위해 그린 인프라에 대한 인식 변화,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 제도 및 정책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조경 등 일부 학계에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생활복지 차원에서 일부 언급되거나,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숲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로 '그린 인프라' 관련 정책적 접근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그

린 인프라의 개념, 기능 및 효과, 그리고 국내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 경관, 관광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 정책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그린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는 국토종합계획 차원에서 그린 인프라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시적인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미시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영역의 경우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 등 생활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 도시 재생사업, 숲가꾸기, 섬

가꾸기,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린 인프라 활성화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순천만국가정원, 영광법성진성 숲생태공원, 담양관방제림, 매타세과이어 가로수 등과 같이 지역대표 그린 인프라 자원을 더욱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며 "영산강, 무등산, 국도77호선 주변, 경전선 주변, 해안 및 갯벌 등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그린 인프라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광주전남의 상생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급변하는 광주시 경관 사진으로 기록한다

자연자원·문화재·건축물 등 아카이브 구축해 시민과 공유

광주시가 급변하는 광주의 경관을 사진 기록물로 남기는 '광주시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광주시는 광주의 과거 모습을 수집하고, 드론 등을 활용하여 가로수 등과 같이 지역대표 그린 인프라 자원을 더욱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며 "영산강, 무등산, 국도77호선 주변, 경전선 주변, 해안 및 갯벌 등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그린 인프라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광주전남의 상생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첫 단계는 기획·연구단계로 경관기록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무등산, 영산강, 황룡강 등 자연경관과 문화재, 학교, 건축물, 시가지 등 도시 전반 등 기록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촬영방법과 기록물 활용 및 관리계획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경관을 촬영

한 후 사진 선별과 보정, 기록물 활용을 위한 설명과 자료 첨부, 옛 사진 수집 등 광주의 다양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기록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기록물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구축된 기록물은 경관계획 수립, 도시경관 관리 및 홍보, 경관기록 장소의 관광 자원화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향후 광주의 자연·역사·문화 등 경관 변천을 기록해 경관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광주의 경관 기록물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정책 수립과 경관 관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어린이통학용 경유차량 LPG로 바꾸세요

광주시 교체비용 500만원 지원
어린이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LPG 신차로 교체하면 차량 구매비로 1대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22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량 1대당 구매 보조금으로 500만원씩 총 53대에 2억6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다.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 LPG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앞서 올해 1차 노후 경유차 LPG차 전환 지원사업(3월 6일~6월 14일)에서 3억5000만원(차량 61대)을 지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자치분권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 22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역 원전정책 참여하게 해달라

전남도, 부산·울산 등과 건의
전남도는 부산시, 울산시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함께 원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 준비단은 6개 주요 권고사항과 27개 세부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5월 사용

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전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 원전 소재 광역단체 참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해당 광역단체장 추천 인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소재 광역단체 인사를 과반수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영·호남 41개 정보화마을 주민 교류행사

해남 우수영 국민관광지서
우수사례 발표·특산품 전시

전남도는 23일까지 2일간 해남 우수영 국민관광지에서 전남, 광주, 경남 정보화마을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하는 '영·호남 정보화마을 주민 교류행사'를 개최한다. '영·호남 정보화마을 주민 교류행사'는 동서 화합 실현과 상생발전을 위한 순수한 민간교류다. 2014년부터 매년 전남과 경남을 서로 교차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 6회째인 이번 행사에선 전남에서 경남 주민들을 초청해 마을 체험행사 우수사례 발표, 마을 특산품 소개 및 전시,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 전·현직 회장 3명과 광주·전남, 경북, 경남 지회장 3명이 참석해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영·호남 41개 정보화 마을은 자매결연하고 현재까지 마을 간 상호 방문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개별 교류활동을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을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해 조성됐다. 2001년부터 전국에 31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에는 41개 마을, 경남에는 28개 마을이 운영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광주상의 추석절 농식품 판매 공동 캠페인

전남도가 광주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추석 대비 전남 우수농식품 구매 활성화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전남도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9월 6일까지 광주상공회의소 1층에서 상공회의소 직원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농수특산물 전시, 판매한다. 또 우수농수특산물 홍보책자를 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배포하고, 누리집을 통해 온·오프라인 구매 활성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동안 순천 모링가차, 나주 영양쌀, 광양 매실액, 담양 한과와 죽순, 곡성 발아현미, 고흥 석류즙, 보성 녹차, 장흥 표고버섯, 영암 전통된장,

영광 꿀비, 완도 건어물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전남도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캠페인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공회의소와 전남도가 함께 추석 공동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우리 농수특산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 다면 주고받은 사람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문흥지점), 573-4150 (양산지점), 528-4150 (운암지점), 513-4150 (운암산지점), 572-4150 (매곡지점), 576-4150 (침단지점)